

흙사랑 물사랑

2026. 5+6월호

 한국농어촌공사





목차

미래를 여는 이야기

- 04 **농정산책**
봄의 얼굴/ 여름의 얼굴
안태운 시인
- 06 **KRC의 발견**
충남 예산 산목저수지
- 08 **농어촌 특독**
공공미디어터를 통해 임대수탁 절차를
보다 더 '간편'하고 '똑똑'하게!
- 10 **휴길따라 농(農)길따라**
생명, 땀 그리고 희망
'2026 안전영농·풍년기원 통수식' 개최

현장에서 만나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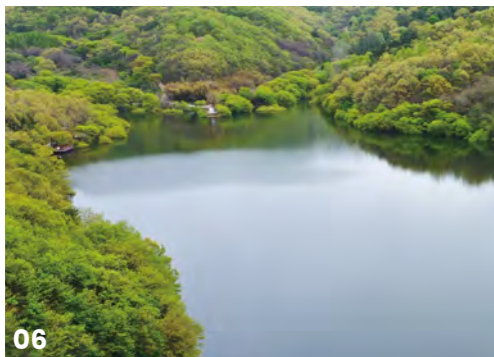
- 14 **KRC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미소처럼"
농심(農心)을 녹인 신입사원의 진심
KRC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 최재선 사원
- 18 **행복농어촌 만들기**
마을에서 도시로,
친환경 가치를 '골골살살' 전한다
경남 합천군 대양권역

미래를 가꾸는 문화

- 22 **농어촌 재발전**
600년의 숨결이 흐르는 삶의 터전,
남대문 시장
- 24 **계절 미식**
여름 밭의 초록 보석
애호박 순대
- 26 **바른말 띄움**
햇갈리기 쉬운 순우리말
올바른 낱자 표기법
- 27 **몸튼튼 마음튼튼**
제대로 걷기
건강을 부르는 올바른 걸음법

농어촌 소식함

- 28 **KRC 헤드라인**
한국농어촌공사 주요 소식 6건
- 30 **공감스토리**
"이 꽃 이름이 뭐지?"
스마트폰 AI 활용하기
- 31 **독자마당**
3+4월호 독자 의견·퀴즈 당첨자
5+6월호 퀴즈



06



14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친구 추가

- STEP 1 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 검색 또는 QR코드를 통해 채널 추가
- STEP 2 1:1채팅방 클릭
- STEP 3 게시물 '좋아요'까지!

봄의
얼굴

봄의 얼굴은 네 삶으로 부치는 개떡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것들은 복화술을 부리고 쌍둥이를 만들며 어딘가 헤맨다. 개떡은 뒤집히면서 더 개떡 같고 소쩍새 같고 봄의 얼굴이라서인지 쑥처럼 뻗으며 있다가 너를 마중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 얼굴은 네 얼굴을 뚫고 들어간다. 하지만 순간 화들짝 놀라 되돌아와 네 얼굴과 포개지는 순간의 얼굴이 봄의 얼굴이다. 개를 바라보는 얼굴도 봄의 얼굴이다. 눈을 다 헤집어 파먹는 얼굴마저 봄의 얼굴이다. 흔들리는 추의 얼굴, 화물열차의 얼굴, 오이 비누의 얼굴도 그러하다. 그러다가 봄의 얼굴을 통해 무엇이든 측은히 여기면 해방이다. 너무 많이 앞으로 걸었으니 뒤로 걸어야 할 것. 봄의 얼굴은 네 삶의 시간을 마냥 하냥 엉덩방아 쪼으며 부친다. 봄의 얼굴은 바다를 활는다. 그것은 숨을 애도하며 스미는 바람이다.

여름의
얼굴

여름의 얼굴은 풀로 이루어져 봉합된 꽃처럼 있다. 여름의 얼굴은 개미가 오르내리는 봉분, 행성의 너울, 수년이 흘러 슬기로워진 두 사람, 뜨락, 흙 속의 검이다. 매 순간마다 여름의 얼굴 안에는 장마가 있었고, 발가락들 사이로 드나드는 흙과 물이 있었고, 청소년기의 얼굴, 창가 자리, 암호문처럼 이지러진 운동장 진흙 바다, 후락의 음악들이 있었으며, 박제를 못 하는 망자와 박제한 동물의 얼굴, 애상, 천지신명이 있었다. 여름의 얼굴 그 근처를 돌려면 발 닿는 데로 돌 수는 있지만 한 번씩은 어루만져 줘야 한다. 손가락에도 흙과 물이 묻어야 한다. 여름의 얼굴은 헤어 나오는 감각으로 허우적거린다. 정신병 같은 앞부분을 건다면 뒤는 좋다고 말하는 친구의 얼굴처럼 여름의 얼굴은 꼭 가까이 있다. 들러붙어 있는 기억처럼 우연히 만날 수는 없다.



안태운

2014년 『문예중앙』을 통해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집 『검은 눈이 내 얼굴을』로 제35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산책하는 사람에게』, 『기억 몸짓』 등을 펴내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침묵이 고인 곳 예산 산목저수지

1982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예산 산목저수지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근에는 안개가 내려앉은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영화 <살목지>의 실제 배경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영화 속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엄연한 ‘현역’ 농업기반시설이다. 산목저수지는 예산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시 홍수를 조절하는 등, 365일 묵묵히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며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소중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이다.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숫자로 본 산목저수지

 전체 유역 면적
220ha

 총 저수량
730.1천m³

 수혜 면적
98.3ha

 제방 높이
22m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임대수탁 절차를 보다 더 '간편'하고 '똑똑'하게!

✓ 공공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정보 전송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국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이용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송하는 서비스 ▶ **단순반복 업무의 전면 자동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

- **이용 대상:** 임대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
- **제출 가능 서류(8종):**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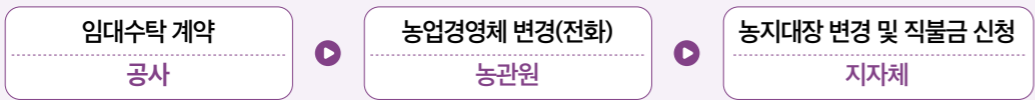
★ 활용 동의 과정



★ **꼭 챙기세요! (직접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와 통장사본은 공공마이데이터 발급이 불가하므로, 위탁자(소유자)가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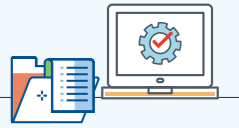
✓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농업경영체 변경도 가능!

2025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임대수탁 계약 정보가 실시간 공유됩니다. 농지대장 변경 없이도 임대수탁 계약 후 전화 1통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수탁 계약정보가 계약 익일 새을시스템에 전송되더라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임대수탁 계약서 지참하여 농지대장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변경 지자체 새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임차인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농지은행 임대차 정보 입력



✓ 보다 간편해진 임대수탁사업 '전자계약' 체결

공공마이데이터 서류제출로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임대수탁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회원가입 후 '임대 신청' 또는 '임차 신청'

★ 진행 순서



*위탁자(농지소유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후 관할 지사에 서류 별도 우편발송 필요

임대차 위탁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별), 통장사본	사용대차 위탁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별)
---------------------------------	----------------------------

✓ 농지전수조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농지소유자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임차농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사전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단 임대수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농지여야 함)

- ①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경우:** '대체 농지' 우선 공급
대상: 소유주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농지를 잃은 임차농
조건: 임차농이 기존에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영농사실확인서, 친환경 인증서 등
- ②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우선 계약
대상: 그동안 공사를 통하지 않고, 구두 계약 등 관행적으로 땅을 빌려 농사짓던 임차농
방식: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 신청합니다.
※ 임차농 보호신고센터 : 1811-8852 (njj.mafra.go.kr)



고삼저수지에서 개최된 통수식 수문 개방 퍼포먼스

생명, 땀 그리고 희망

‘2026 안전영농·풍년기원 통수식’ 개최

하얀 물보라가 일며 농토를 적실 젖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에서 ‘2026년 풍년 기원 통수식’을 개최하며 한 해 풍년의 서곡을 울렸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농업은 우리 삶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에 공사는 올 한 해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지역 농민들과 함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통수식이 지닌 생명과 희망의 의미

한국농어촌공사의 통수식은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매년 전국의 대표 저수지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염원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수식은 100여 년 전인 1923년 한강 신곡양배수장에서 거행된 ‘금파*통수식’이다. 공사는 선조들이 이어온 풍년의 염원을 품고, 매년 영농기 초입마다 주요 저수지에서 통수식을 거행하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금파(金波)*: 황금 들녘, 벼 따위의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

기후위기 너머,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현재에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예측 시스템과 철저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수한해(가뭄과 홍수) 대비에 돌입했다. 주요 용수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고,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배수 체계 개선과 수질 관리 강화에 힘써왔다. 농업인이 오직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 영농’의 기반을 닦아온 셈이다.

- 01. 기념사 중인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02. 적기 적량의 용수공급을 약속하는 남호성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03. 수문이 열린 고삼저수지

이러진 풍년 기원 제례에는 김인중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정성껏 술을 올리며 올 한 해 안성 들녘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축문이 올려 퍼졌다.

“천지신명께 감히 아뢰옵니다. 길일을 맞아 고하오니, 이 땅에 물이 고루 소통되게 하시고 홍수와 범람의 공포를 거두어 주소서. 눈에 물을 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민생의 근심을 돌보시어 영원히 재앙이 없도록 도우소서.”

제례를 마친 뒤 수문 개방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함께 수문 버튼을 누르자, 겨우내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며 힘찬 물줄기가 물길을 따라 쏟아져 나갔다. 또 다른 100년, 농업의 미래를 향해 흐르는 ‘희망의 물길’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었다.



- 04. 전통 제례 의식
- 05. 통수식 직후의 고삼저수지
- 06. 참석자들과 이야기 중인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예측 시스템과 철저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는 풍년의 지도

이날 고삼저수지 통수식 현장에는 지역 농민단체를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인중 사장은 급변하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포착하고자 지역 관계자 및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호성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바람대로 적기에, 깨끗한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부모님을 향한 미소처럼”

농심(農心)을 녹인 신입사원의 진심

KRC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최재선 사원



초여름의 길목,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앞마당에 기분 좋은 설렘이 내려앉았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이 전한 따뜻한 진심이 민원인의 마음을 움직여, 지사 전체를 들썩이게 한 ‘칭찬 푸드트럭’ 선물로 돌아온 것이다.

“조직을 나아가게 하는 힘은 신뢰와 격려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구미김천지사에 다녀왔다.

경북의 선진지사, 구미김천의 자부심

곳었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아진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앞마당에 화사한 보라색 푸드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선다. 이곳 구미김천지사는 경북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지사로 통한다. 구미김천지사는 관할 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해 농지은행관리부에 은행식 번호표와 안내 표식을 도입,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였다. 오늘날만큼 이 멋진 풍경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농지은행관리부의 ‘슈퍼 루키’ 최재선 사원에게 도착한 특별한 선물이다.

05



- 01. '최재선 사원이 씁니다'는 현수막을 단 푸드트럭
- 02. 구미김천지사 최재선 사원
- 03. 손분득 농지은행관리부 부장
- 04. 최재선 사원은 상담 진행 중
- 05. 구미김천지사 전경

입사 6개월 차,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다

오늘의 주인공 최재선 사원은 입사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 된 새내기다. 사실 농지연금 업무라는 게 그리 만만치 않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다루다 보니 행정 절차는 까다롭고, 설명해야 할 내용은 산더미처럼 많다. 하지만 최재선 사원은 특유의 진심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갔다. 복잡한 용어 대신 부모님께 설명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쉬운 단어를 고르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제가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단계라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수줍게 웃어 보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했던 그의 정성은 결국 ‘친절한 최재선 사원’이라는 뜨거운 칭찬과 함께 이 보라색 푸드트럭을 지사 마당까지 불러들였다.





06, 07. 간식을 받는 구미김천지사 동료들
08. 최재선 사원이 쓴 간식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직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신입인 최재선 사원과는 지사 내에서 접점이 많지 않았던 타 부서 동료들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푸드트럭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최재선 사원, 덕분에 오늘 오후가 너무 행복하네!”, “우리 지사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을 줄이야!” 동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응원의 말에 최재선 사원의 얼굴도 금세 밝그레해진다.

든든한 버팀목, 농지은행관리부의 화합

이날 현장에는 최재선 사원의 든든한 지원군인 손분득 농지은행관리부 부장과 팀원들도 모두 나와 기쁨을 함께했다. 손분득 부장은 최재선 사원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사원은 예의 바르고 기본이 바로 선 동료다. 본인 업무는 물론 농지은행 전반을 배우려는 태도가 좋고, 무엇보다 ‘일머리’와 업무 센스가 뛰어나다. 항상 경청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선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

오아시스처럼 찾아온 보라색 푸드트럭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녹초가 된 구미김천지사 직원들. 햇별을 가르고 나타난 보라색 트럭 위에는 ‘최재선 사원이 씁니다!’라는 기분 좋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곧이어 고소한 닭강정과 향긋한 커피 냄새가 지사 전체로 퍼져 나간다.

밝은 미소로 민원인·동료들을 녹인 최재선 사원



이승엽 농지은행관리부 과장 역시 “마치 부서 전체 회식을 나온 것처럼 즐겁다. 최 사원 덕분에 우리 부서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실제 구미김천지사는 경북 내에서 농지은행 사업 규모가 최상위권에 속해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재선 사원이 가져온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업무에 지친 동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민원인, 직원 모두가 하나된 구미김천지사

업무를 보러 들른 본부 직원들은 뜻밖의 선물에 놀라며 즐거워했고, 지사를 방문한 지역 민원인들도 줄을 서서 식혜와 아이스티를 주문하며 최재선 사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신뢰와 격려의 온도가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준 달콤한 쿠키와 커피 그리고 늦게까지 현장을 누비고 돌아온 동료들을 위한 든든한 닭강정까지. 칭찬의 힘이 맛있는 향기를 타고 지사 전체로 퍼져 나갔다. 최재선 사원의 친절함이 쏠아 올린 작은 공이 구미김천지사 전체를 춤추게 만든 참으로 ‘맛있는’ 하루였다.

Mini Interview



최재선
농지은행관리부 사원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전한 작은 미소가 큰 칭찬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손분득
농지은행관리부 부장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농지은행관리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농민 편에 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모두 고맙고~ 구미김천지사 파이팅!

마을에서 도시로, 친환경 가치를 ‘골골살살’ 전한다

경남 합천군 대양권역

밭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확산하기 위해 4개의 마을이 모였다. 친환경 가치 속에서 '방방곡곡'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골골살살'이라는 슬로건처럼, 대양권역은 건강한 친환경의 가치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꿈꾼다. 오늘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대양권역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양권역 대양친환경문화센터 실외 모습



01. 대양친환경문화센터 전경 모습
02. 한지 공예 체험
03. 친환경 딸기 텃밭



자연과 사람,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대양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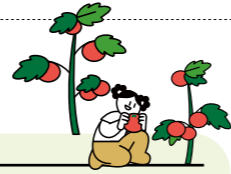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에 위치한 대양권역은 4개 마을(254가구, 398명)이 뜻을 모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곳이다.

이곳은 고추재배 하우스와 간마늘 가공공장 등 공동소득 기반을 다진 후,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대양친환경문화센터'를 조성했다. 센터는 식당, 체험관, 카페, 숙박시설을 갖춘 이곳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이자 도시와 농촌을 잇는 활기찬 교류의 장이 됐다. 202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이후 족욕, 아로마, 음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으며, 2025년에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양권역 담당 사무장과의 1문 1답

Q. 대양권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양권역은 친환경 농업과 문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은 공동체이자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친환경 농산물을 매개로 방문객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배움과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이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의 거점으로서 관계 인구가 늘어나 주민 소득 향상이 되어 마을의 활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 대양권역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한로 16
 전화: 055-931-1112
 특산물: 토마토, 딸기, 쌀 마늘, 브로콜리 등
마을자원
 정양농생태공원, 대암산, 대양 유기농 토마토 축제

Q. 대양권역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단연코 '사람'입니다. 지금의 문화센터가 활성화되기까지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양친환경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까지 주민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묵묵히 책임감 있게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시간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Q. 대양권역만의 차별화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 식탁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체험이 이어집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공동체 문화, 친환경 가치가 어우러진다는 점이 저희만의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06. 친환경텃밭 구경
 07. 대양친환경문화센터 주민들
 08. 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Q. 앞으로 대양권역의 장기적인 미래상은 무엇인가요?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며 농촌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체류형 공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마을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공동 이용 공간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대양권역만의 친환경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우리 마을을 넘어 농촌 전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Q. 한국농어촌공사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맞춰 나가고 싶으신가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적 도움을 넘어 우리 마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준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전문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마을의 강점을 설득력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워케이션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양만의 친환경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09. 마을 캐기
 10. 네일 아트 체험



남대문 시장의 아침

600년의 숨결이 흐르는 삶의 터전, 남대문시장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것은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퀴 굴러가는 소리다. 남대문시장의 아침은 일찍, 그리고 치열하게 시작된다. 좁은 골목 사이로 '구르마'를 팔며 형형색색의 꽃을 실어 나르는 이, 겹겹이 쌓인 접시를 곡예 하듯 옮기는 이, 밤새 주인을 기다린 옷가지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손길까지. 이 활기찬 소란함은 얼핏 여느 시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유통의 심장이자 역사의 산증인, 서울 남대문시장이다

국보 제1호와 마주한 600년의 시간

남대문시장은 국보 제1호 승례문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 뿌리는 무려 600여 년 전인 1414년(태종 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정이 감독하던 '정부 임대(政府賃貸)전' 형태의 시전으로 출발한 이곳은, 조선 시대와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서민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 왔다.

특히 1608년 선혜청이 남창동에 설치되면서 대동미와 특산물이 모여드는 저잣거리가 형성되었고, 1897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서 상거래의 기틀을 잡았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포화 그리고 수차례의 화재라는 굴곡진 풍파 속에서도 남대문시장은 오뎀이처럼 일어나 국내 최고·최대 시장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골목마다 피어나는 삶의 향기

남대문시장의 진면목은 미로처럼 얽힌 특화 골목에 있다. 한 걸음만 옮겨도 풍경과 냄새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이곳의 묘미다. 갈치조림 골목에서는 매콤한 양념 냄새와 구수한 육수 향이 코끝을 찌른다. 양은 냄비가 자글자글 끓는 소리와 "서비스로 계란찜 줄게!"라는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는 시장의 활기를 더한다.

군복 골목에는 전투화, 모자, 시계 등 다양한 밀리터리 제품이 준비하며, 수선집들이 줄지어 있어 맞춤형 재단도 가능하다. 칼국수 골목은 양옆으로 오픈형 주방이 길게 이어져, 자리에 앉아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는 진정한 한국형 '패스트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인근의 남대문 종합상가를 발견음을 옮기면 1층부터 4층까지 반짝이는 장신구와 주방용품, 그리고 생생한 꽃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01



02

01. 칼국수 골목 입구 02. 갈치조림



03



04

03. 남대문상가 연결통로 04. 판매대에 놓인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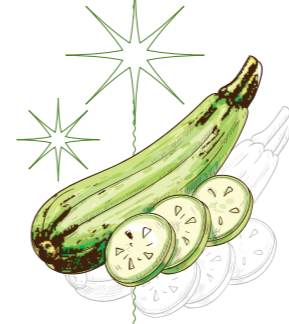
오늘도 멈추지 않는 활력

지게차와 오토바이가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누비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언어가 뒤섞이는 이곳. 1414년 정부 임대시전으로 시작해 2012년 상인회 등록에 이르기까지, 남대문시장은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의 추억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역사의 현장인 곳. 승례문을 등지고 서서 시장의 소란함을 듣고 싶다면, 60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한 생명력이 앞으로의 600년 또한 든든히 지켜줄 것만 같다.

여름 밭의 초록 보석,
정성으로 빛은

애
호
박
순
대



자연을 담은 엄마의
Recipe

◇ 요리방법 ◇

- 1 애호박은 양 끝을 2cm 길이로 잘라내고 끝이 뾰족한 필러로 가운데 속을 동그랗게 파낸다.
- 2 검은콩 두부는 으깨고 당근과 소 재료용 애호박과 표고버섯은 곱게 다진다.
- 3 큰 그릇은 으갠 두부, 당근, 다진 애호박, 표고버섯을 넣고 맛간장과 참기름으로 섞어 애호박을 채운다.
- 4 속을 채운 호박을 길이 오른 찜통에 넣고 5분 정도 찌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잣을 하나씩 올린다.

재료(4인분 기준)

- 애호박 3개
- 검은콩 두부 1/2모(300g)
- 당근 1/2
- 애호박(소 재료용) 1/3개
- 표고버섯 3개
- 잣 약간
- 맛간장 2큰술
- 참기름 1큰술



출처 배영자, 『자연을 담은 엄마요리』, 상상출판(2021)

『자연을 담은 엄마요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철 식재료를 정성껏 차려낸 204가지 건강 음식을 담은 시골 엄마표 레시피북이다. 이 책에는 상추 물김치, 유채꽃 샐러드, 가지 당수, 생된장 비빔밥, 검은콩 청국장가루 드레싱처럼 자식들을 위해 소박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궁리하다 탄생한 창의적인 메뉴들이 가득하다.

+ 헛갈리기 쉬운 순우리말 +

올바른 날짜 표기법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시간의 이름들 속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헛갈리기 쉬운 우리말 날짜 계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어 표현까지 함께 챙겨, 한층 더 정확한 소통을 시작해 보세요.

Q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말을 고르시오

1. 어제-어제-오늘-내일-모레-(?)

정답: **글피**

모레: 내일의 다음 날, 오늘로부터 2일 뒤의 날

글피: 모레의 다음 날, 오늘로부터 3일 뒤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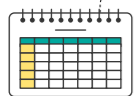
★ 보너스+

글피의 다음 날은 '그글피', '그제'의 전날은 '그그제'라고도 표현합니다.

2. 삼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흘**

사흘은 '날이 세 번 지난 시간', 즉 '3일'을 의미합니다.



✓ 순우리말로 날짜 세기

1일 하루 / 2일 이틀 / 3일 사흘 / 4일 나흘 / 5일 닷새

6일 엿새 / 7일 이레 / 8일 여드레 / 9일 아흐레 / 10일 열흘

★ 보너스+

어제=작일 / 오늘=금일 / 내일=명일 / 다음날=익일

오늘의 띄움

수고했습니다.

오른 주먹으로 주먹을 친 왼 팔등을 두 번 두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으로 머리 양쪽을 두 번 두드립니다.



+ 무작정 걷기보다 제대로 걷기 +

건강을 부르는 올바른 걸음법

따스한 햇살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다 보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걷기 자세'와 효과적인 운동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기분 좋은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올바른 걷기 자세

- ★ 시선은 정면**
 정면 10~15m 앞을 바라보며 턱을 가볍게 당깁니다.
- ★ 허리와 가슴은 펴고, 어깨엔 힘 빼고**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은 뺏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어 주세요.
- ★ 복부엔 약간의 긴장감 유지**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가벼운 긴장감을 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보폭은 약간 넓게, 속도 는 약간 숨 칠 정도로**
 다리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자극하여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천천히 걷기보다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땀이 조금 나는 속도가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 체중을 옮겨가며 걷기**
 양발은 십일자가 되도록 하고, 걸을 때 발의 안쪽이 살짝 스치듯이 걷습니다. 발을 땅에 댈 때는 '뒤꿈치 → 발바닥 → 앞꿈치(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이동하며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KRC HEADLINE

2026. 5+6월호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KRC)는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5월 14일에 밝혔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농지를 우선 임대해 안정적인 경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달성

KRC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KRC는 이번 조사에서 종합 95.2점을 기록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91.4점 대비 3.8점 높은 수치다. ▲농촌융수관리 ▲농지는행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활력증진 등 모든 조사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민과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공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달성

KRC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과 상생 문화 확산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KRC는 ▲동반성장 전략 수립 및 추진 노력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사 임직원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책대상서 ‘우수정책상’ 수상, 이노 웨이브 혁신 ‘인정’

KRC는 지난 4월 24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부문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공사의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프로젝트인 ‘케이알시 이노웨이브 1·2·3*(KRC Inno-Wave 1·2·3)’의 아이디어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농업·농촌 현장의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 일하는 방식의 혁신(웨이브 1)과 사업구조 효율화(웨이브 2)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웨이브 3)하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디지털 포럼’서 인공지능 전환전략 논의

KRC는 지난 5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서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KRC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KRC-AX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등 발표됐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과 농어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공유됐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KRC의 인공지능 전환 실행력을 높여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 연구 실용화 위한 ‘연구소통협업체’ 개최

KRC는 지난 4월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업생산 기반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소통협업체’를 열고, 농업생산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KRC 농어촌연구원 도종원 차장이 ‘농공분야 기술수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공분야 14개 기술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과 격차를 소개했다. 이어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 주재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KRC는 이번 연구소통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꽃 이름이 뭐지?" 사진 한 장으로 끝내는 스마트폰 AI 활용하기

길을 걷다 마주친 예쁜 꽃이나 처음 보는 물고기, 이름이 궁금해 답답하셨죠? 이제 이름표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AI가 바로 알려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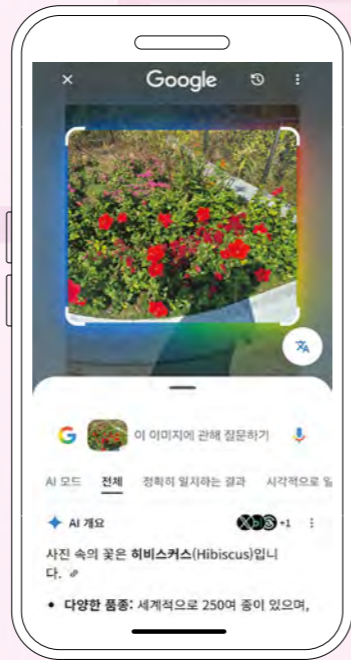


1단계 궁금한 대상 사진 찍기
(또는 화면에 띄우기)



[O] 버튼 2초간 꾹 누르기

2단계 하단 중앙의 [O] 버튼
2초간 꾹 누르기



4단계 AI가 찾아준 결과 확인하면 끝!

3단계 알고 싶은 물체에 동그라미 그리기

활용 팁

식물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착장 정보, 여행 중 발견한 명소, 처음 보는 강아지 품종까지 무엇이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러리를 열어 테스트해 보세요!

3+4월호 독자 의견



김*경
농(農)하는 세상

박광호 교수님께서 세계 각지를 누비며 K-농업 확산에 열정을 쏟고 계신 모습이 깊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독자후기
감사합니다!



김*석
행복농어촌 만들기

연천 푸르내마을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농촌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힘차게 그려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진
계절 미식

원추리 된장국에 제육볶음을 곁들여 먹으면 딱일 듯합니다. 흠사랑 물사랑 덕분에 시골 정서가 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퀴즈 정답까

퀴즈의 정답

① 으뜸촌

당첨까

배달의 민족 5만원권
황*진 6563 전*욱 0766

투썸플레이스 5천원권(20명)

황*비 3803	이*준 7520
배*미 2071	백*석 2784
산*조 5951	김*정 5270
김*희 4780	이*후 1865
최*련 6657	신*서 1592
김*경 2941	우*숙 9490
우*종 2019	이*숙 8713
최*미 8331	이*영 4091
최*하 3433	김*영 5530
강*현 3084	박*윤 3455

<흠사랑 물사랑>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답자는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상품 지급일: 6월 5일(금)



퀴즈 이벤트

문제: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저수지로, 이번 사보에서 '2026년 안전영농·풍년기원 통수식'이 진행됐습니다. 1950년 착공 이후 안성 농민들의 삶을 지탱해온 젖줄인 이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 ① 덕산저수지 ② 마산저수지 ③ 반제저수지 ④ 고삼저수지

참여 방법 QR코드 접속 후 퀴즈 정답 제출

참여 기간 5월 29일(금) ~ 7월 1일(수)

이벤트 경품 배달의 민족 5만원권(2명), 투썸플레이스 5천원권(20명)



이벤트 참여

